노출 없이도 빛난 여배우는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제3073호 www.metroseoul.co.kr

세계 최대 스크린 펼쳐진다

인생 이모작 중장년 취업 박람회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공동 주최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4 중장년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부리고… 말고…' 플렉서블 전지 첫선

인터배터리 전시회

삼성 SDI·LG화학 제품 웨어러블기기 적용 기대감 알약크기 소형 핀 전지도

직장인 김모씨는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를 위해 지갑에서 휜 배터리를 꺼낸다. 또 호주머니에 말려있는 배터리를 꺼내 자연스럽게 교체한다.

다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삼성SDI가 14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플렉서블 전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렉서블 전지는 단순히 커브드(Curved) 형태를 뛰어넘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돌돌 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삼성SDI 신기술 개발 집중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 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플렉서블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공개한 웨어러블 기기 '기어 핏'에 적용됐던 대용량 커브드 배터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셈이다.

삼성SD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렉서블 구조설계 기술과 소재기술이 적용돼 일반 종이컵 수준의 곡률 범위 내에서 수만 번 굽혔다 펴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삼성SDI는 "앞으로 수년 내 제품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 제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대량생산에 필수적인 공정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직경 3.6㎜, 길이 20㎜의 한술 알약 크기의 초소형 핀(Pin) 전지도 함께 공개했다. 초소형 사이즈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 IT용 배터리는 물론 전동공구 등 비(非) IT 분야용 배터리, 자동차용,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중대형 제품 등 기존에 나왔던 제품도 함께 전시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박상진 삼성SDI 사장은 "이번에 공개한 플렉서블 전지와 초소형 핀 전지는 다가올 웨어러블 시대를 한층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다가올 사물인터넷(IoT)과 웨어러블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제품으로 배터리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LG화학 다양한 크기·기능 강조

LG화학은 이번 전시회에서 모바일, 자동차, 전력저장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 부스를 설치하고 초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크기와 기능이 차별화된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전시했다.

모바일 섹션에서는 손톱크기의 웨어러블 기기용 초소형 폴리머 전지부터 마음대로 말고 휘고 감을 수 있는 스텝드 배터리, 커브드배터리, 케이블 배터리 등 미래형 배터리들과 이들이 적용된 다양한 IT제품을 전시했다.

또 전기자전거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력구동용 배터리를 비롯해 전동공구용, 청소기용, 원예공구용 등 리튬 배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비IT 분야의 제품도 선보였다.

자동차 섹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GM의 스파크EV 등의 실물 전환경차량과 함께 다양한 전동카트를 전시했다. 전력저장 섹션에서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 전시를 통해 가정부터 전력망까지 배터리를 통해 전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윤성원기자 ysw@metroseoul.co.kr

육군 병사 계급 52년 만에 개편

'일병－상병' 2단계 | 병장은 분대장에게만 부여 검토

육군은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 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에게 이병 계급이 부여되나 실제로는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이병 계급장은 훈련소를 퇴소할 때 달게 된다.

육군의 검토안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 계급별 복무 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육군이 추진하는 병사 계급 체계 단순화가 현실화하면 52년 만에 4계급 체계가 사실상 2계급 체계로 바뀌는 셈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신병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된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김무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40일 만에 지팡이 짚고 공개석상 나타나

신병이상설 불식 의도인 듯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행' 40일만에 지팡이를 짚고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처음이다.

김 제1위원장이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현지지도하는 사진이 공개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 7월8일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처음으로 오른쪽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4일 김 제1위원장이 평양에 완공된 과학자 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이후 최장기간의 잠행을 깨고 건재를 과시한 만큼 그동안 불거졌던 그의 신변이상설도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살림집(주택), 소학교, 초급중학교, 종합진료소, 탁아원, 태양열 온실 등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다"고 밝혀 그가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조감도 앞에서 해설을 들은 후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다" "희한한 풍경"이라며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그가 간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는 등 비교적 건강해 보였으며, 예전에 비해 배가 다소 들어가 있는 등 전보다 체중이 줄어든 듯한 모습이었다.

김 제1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내각 산하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에너지)연구소도 방문했으며 국가과학원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앞에서 과학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같이 김 제1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은 건강이상설, 쿠데타설 등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최고지도자의 오랜 잠행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기자 ...@metroseoul.co.kr

금융권 국감 증인채택만 요란할까

기자 수첩

백아란 <금융시장부 기자>

국회는 추수(秋收)가 한창이다.

매년 가을 정기 국회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등 가을 걷이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금융사태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등 현안들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 등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등 KB금융의 주요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 한해 KB사태가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를 다루는 점은 환영할 만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자칫 정책국감이 아닌 KB만을 위한 책임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사태 후속대책이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증인 채택도 최소화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올해 국감에는 모두 15명의 금융권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또 퇴직 CEO들이 많은 데다 기업인 대거 증인 채택을 자성해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현안을 따져묻는 권리이자 활동이다.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불러야 한다.

다만 증인 채택만 요란할뿐 심도 깊은 질의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맥빠진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뉴스&뉴스

육군총장 "성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육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14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참모총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엔 28일 북한 인권문제 논의하기로

●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결의안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음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온갖 의혹을 잠재우며 40일 만에 등장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습의 사진이 14일 공개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1~3면에 김 제1위원장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신문 1면에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장 실렸다. /연합뉴스

"中 어민 사망, 우호 관계 영향 없어야"

한·중 영사국장회의 합의

한국과 중국이 최근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고가 양국의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영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쭈궈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한중 영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한중간 영토와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어선 선장 송호우트어(45)씨가 불법 조업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하다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폭력을 행사한 중국 어선 선원 3명을 구속했다.

중국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항의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간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현정기자 (사진)

여야, '세월호법' TF 구성··이번주 가동

여야는 14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TF를 각각 구성해 이번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주호영·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 3법안을 패키지 협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여당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 회동을 열어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2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29% 초과 9호선 미세먼지 농도 최고

지하철 공기질 '빨간불'

서울 지하철 공기 질 측정 결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웃돌고, 9호선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염수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지하철 노선에 비혼잡시간대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327ppm으로 권고 기준치(2000ppm)의 68%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3㎍/㎥로 권고기준치(200㎍/㎥)의 39% 수준이었다.

혼잡 시간대(오후 2~6시)에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1405ppm으로 권고기준치의 56%였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4㎍/㎥로 권고기준치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2호선은 이산화탄소량이 비혼잡 시간대엔 2576ppm, 혼잡시간대엔 2578ppm으로 측정돼 권고기준치를 29%가량 초과했다.

이처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은 다른 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혼잡 시간대와 혼잡시간대 모두 9호선이 각각 147㎍/㎥, 111㎍/㎥으로 가장 높았다.

염 의원은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질은 권고 기준이라 기준을 넘어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깨끗한 환경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설악산 첫 상고대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 일대에 14일 올가을 처음으로 관측된 상고대가 활짝 피어 있다. 설악산은 이날 새벽 6시 기온이 영하1도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7일에는 첫 얼음이 얼기도 했다. /연합뉴스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

이번주 내내 쌀쌀 "일교차 커 건강 유의"

14일 아침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가평, 강원도 평창, 화천, 양구 등 중북부와 충북 제천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며, 한낮에도 전국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선선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5일 아침기온도 상층으로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고기압권에서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에는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주 내내 쌀쌀한 아침날씨가 계속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다혜기자

석촌호수 '러버덕'에 몰린 인파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이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Rubber Duck)'을 관람하고 있다.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인 이 대형오리는 2007년부터 프랑스 생나제르,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 브라질 상파울루 등 10여 개국 12개 도시를 여행했다. 지난해에는 홍콩 하버시티 빅토리아 항구와 대만 가오슝에도 전시됐다. 롯데월드몰 '어바뉴엘 월드타워점' 개장 기념으로 전시된 이 대형 고무 오리는 다음달 14일까지 전시된다. /연합뉴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별 따기'

전국 대기만 46만명 서울지역 22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입소하기 위해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18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만2917명, 경기도가 10만2026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소 대기자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바늘구멍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어린이집 4702곳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인원이 22만882명인 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3만8128곳에 입소하려는 인원은 23만9436명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 7.8배나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김 의원은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분실·도난 스마트폰 밀수출 조직 적발

'흔들이' 거쳐 해외행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한 혐의로 총책 김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장물 스마트폰 400여대(5억원 상당)를 홍콩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에 강남대로 등 택시가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흔들어 유인하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16만~3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운송업체 직원과 짜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수출품 상자에 추가로 스마트폰을 끼워넣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는 연락처나 공인인증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각종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휴대전화 장물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다혜기자

중국산 수의 국내산 속여 630억 '꿀꺽'

유명 상조업체 임직원 무더기 적발

유족들에게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국내 유명 상조업체 임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4월까지 계약한 장례 용품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고가의 국산 '안동포 수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자 1만9000여명에게서 63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872차례에 걸쳐 봉안당 업체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봉안당 분양 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 10년 구형

검찰이 2조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등 STX 전직 임원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6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푸틴 셔츠·백팩 나왔다

metro Russia

화가, 의류 브랜드 출시

최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화가가 푸틴의 얼굴 이미지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미술가 알렉세이 세르기엔코는 푸틴 대통령의 생일(10월 7일)에 맞춰 조국이란 의미를 가진 브랜드 '로디나'를 출시했다. 이날 세르기엔코는 푸틴의 얼굴을 테마로 한 성인 및 아동 의류와 패션 소품 등을 선보였다.

세르기엔코는 "대통령의 얼굴은 항상 매력적인 디자인 소재였다"며 "많은 사람들이 로디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푸틴의 얼굴을 작은 로고로 표현한 티셔츠와 백팩이 인기"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그렸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마트료시카 인형과 자작나무를 주로 그렸다"며 "우연히 푸틴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브랜드까지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르기엔코는 "브랜드 출시 전 티셔츠를 대통령궁으로 보냈다"며 "내가 보낸 생일 선물을 좋아하시길 바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10월 말에 파리에서 로디나 컬렉션을 선보인 후 세계 무대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장래 포부를 밝혔다.

한편 푸틴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세르기엔코는 매년 대통령의 생일에 이색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2년에는 푸틴의 인간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을 선물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보냈다.

/알렉세이 세르기엔코 기자 · 정리=김현정기자

기침만 해도 에볼라 환자 의심

metro France

파리 지하철 해프닝

프랑스 파리에서 에볼라 공포로 지하철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파리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로 의심되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여간호사 한명이다. 해당 환자는 진단을 받고 당일 퇴원했지만 이후 파리 지하철에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방은 이번주 초 지하철 4호선에서 손을 비닐봉지에 넣고 손잡이를 잡은 60대 노인을 목격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비닐봉지로 손을 감싼 셈이다. 또 리자르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최근 지하철 8호선을 탄 뒤 크게 기침을 했다. 그순간 맞은편에 있는 중년 부인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다!'고 소리를 쳤고 그는 근거 없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실제 지하철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확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려면 보균자가 땀이 흥건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하고 이어서 다음 사람이 그 손잡이를 만진 뒤 눈을 비벼야 한다. 물론 상처가 있을경우 바이러스가 바로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처 주변에 밴드를 붙이거나 가리는 등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마티스 엘 라부디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하얀 수의'·'죽음의 천사'

IS 잡는 게릴라 단체 등장… 한 지역에서 100여 명 살해

그리스 아테네에서 13일(현지시간) 쿠르드족 시위대 이슬람국가(IS)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납치해 처단하는 게릴라가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휴먼라이츠 시리아 지부 라미 압둘라만 지부장은 시리아에 IS 대원을 노리는 소규모 게릴라 단체가 여럿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얀 수의'라는 이름의 게릴라 조직은 데이르 알 조르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IS 대원을 살해했다. 이들은 보통 대원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 곳곳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또 다른 게릴라 조직은 지난 9월 한 검문소를 습격해 10여 명의 IS 대원을 살해했다. 오토바이에 탄 채 검문소에 있던 IS 대원을 향해 총격을 가한 일도 있었다.

이들 게릴라 단체는 '하얀 수의', '유령 여단', '죽음의 천사 여단' 등 이름부터 무시무시하다. IS 대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하얀 수의' 대변인은 "IS 대원들은 우리한테 납치될까 봐 절대 혼자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얀 수의'가 활동하는 데이르 알-조르 지역은 IS가 시리아 전역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IS는 지난 7월 원유 생산지인 이 곳을 장악, 바시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항해 싸우던 반군 세력을 참수하는 등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한 시아파 반군 단체는 7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결국 IS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무장 세력의 '공공의 적'이 됐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가톨릭, 동성애·이혼 포용 시사 바티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주교 시노드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주교들이 1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토론 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시노드에서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와 이혼을 포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계획이라는 예비보고서가 발표됐다. 기존의 교리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와 이혼, 피임 등 엄격히 금해온 사안에 폭넓게 문을 열겠다는 것이어서 19일 최종 보고서의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P 연합뉴스

美간호사 85% "에볼라 교육 못 받아"

병원서 의심환자 수용 방법 등 지침 없었다

미국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에볼라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간호사연합(NNU)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소속 병원에서 에볼라와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는 소속 병원으로부터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공식 방침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호사가 미국 내 두번째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 연방 차원의 지침도 아직 없다.

이날 톰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에볼라에 대한 미국 의료 통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라이베리아의 의료종사자 노조가 이날 파업에 들어갔다.

라이베리아 의료종사자 노조 위원장은 "라이베리아 전역의 에볼라 치료 의료진이 일손을 놓았다"고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노조는 위험수당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2316명이 숨졌다. 에볼라 발병국 중 가장 많다. 사망자 중 의료 종사자는 95명이다. /조선미기자

목표 기업 10개 이내로 줄여야 취업 성공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취업단기 이상재 본부장

맞춤형 지원동기로 면접관 사로잡아야
마케팅보다는 영업·구매쪽이 기회 많아

"모든 회사의 취업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들의 신봉가는 스펙 9종 세트를 모두 갖춰도 취업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 맞춤형 열쇠만 준비한다면 단기간에도 충분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취업단기를 이끌고 있는 이상재(사진) 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기업에서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는 착각에 빠져 필요없는 스펙 쌓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구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회사에서 원하는 분야의 '허들'을 뛰어넘을 능력만 갖추면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것도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넘으려고 애를 쓰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같은 안타까움을 덜기 위해 지난달 마련됐던 2차례의 취업 무료 특강에는 무려 1600명이나 몰리는 기염을 토했다.

◆취업 무료 특강에 1600명 몰려

"취업 정보에 목말라하는 구직자가 많은 탓인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특강을 듣기 위해 귀중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참가자로 인해 강의에 집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계획된 1시간 반을 훌쩍 넘긴 2시간 50분 만에 강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한명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모두들 무척 놀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참가자들의 이같은 열기는 다른 취업 사이트나 특강에서는 듣기 힘든 최근 취업에 성공한 현직의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실하면 취업할 수 있다"와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럼 이 본부장이 전한 취업현장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최근에는 인사팀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업부서에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과생의 경우에는 전공 관련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죠. 현업에서만 사용하는 전문지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기초를 토대로 선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수준에 도달해야 취업 관문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이과생, 전공 기초 지식 갖춰야

이 본부장은 최근 취업 소외 계층으로 여겨지는 문과생들에 대한 처방도 일러줬다.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다.

"지원동기를 쓰는 난에 업계에 대한 동기를 쓰는 실수를 범하는 구직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들어 호텔롯데에 지원한 구직자가 호텔업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지원동기를 작성하는 것은 다른 호텔업계에도 지원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죠.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호텔롯데가 최근 진출한 사업이나 돈을 벌고 있는 분야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써야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문과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케팅 직무보다는 영업이나 구매 직무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회사의 매출과 관련 깊은 영업 구매에서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00명 구직자가 참가했던 취업단기 무료 취업특강.

이 본부장은 구직자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취업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에서 갈립니다. 목표로 삼은 기업이 10개를 넘어가면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어 실패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죠. 하지만 주변 친구나 지인들의 모습에 불안해하며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묻지마 지원'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지면 취업은 물론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회사 가치관과 일치하는 경험 써야

Q 살면서 어려웠던 경험과 성공했던 경험을 왜 물어보는 거죠? 너무 막연해요.

A 지원자의 경험을 묻는 질문은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려웠던 경험과 그 안에서 성공했던 경험에 대한 답변은 사실 지원자의 회사적응력을 가늠해보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현업부서에서 원하는 스타일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팁을 주기 때문이죠.

경험을 묻는 질문들에게 말로 여러분이 장차 어떻게 일할 것 같은지에 대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사 후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할 것인지 개인의 경험에 빗대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약속을 잘 지키고 리더십이 있다, 제 시간에 업무를 끝낸다는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회사의 가치관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실제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작성하되 동기들과 같이 팀 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과제를 해냈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끝냈다'와 같은 과장된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감을 보여 줄 수는 있겠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협력하고 함께 거둔 성과 위주로 작성하세요. '어떤 일이 힘들었다'고 단순히 쓰지 말고 그 일을 해냈던 과정을 서술하세요.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원자의 태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거짓말을 하는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 지 못하는 일을 시켰거나 쉽지 않은 업무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구성원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겸허해 일을 해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지원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성적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죠.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을 묻는 이유는 꾸며낸 시나리오 같거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이 아닌 회사에서 이 지원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할 건지에 대해 예측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관련 질문에 경험만 쓰지 마시고 조직에서 중시 여기는 가치가 드러나는 경험과 그 과정을 쓰세요.

/취업단기(www.cmjdan.com)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무료 모의고사·공채 자료 쿠폰

알뜰하게 준비하는 법

하반기 공채가 중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구직자들의 필기 시험과 면접 준비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실속있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잡코리아는 연말까지 주요 대기업 필기시험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응시뿐 아니라 정답 결과표 확인도 무료다. 모의고사는 시중에서 시험 1개당 9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총 17개 시험에 모두 응시할 경우 15만3000원을 아낄 수 있다.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은 올해 3월 최신개정판으로 상세 결과표부터 취약 영역과 현재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시간 측정을 통해 실제 시험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치를 수 있다. 잡코리아 회원이면 누구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시 가능하다.

사람인은 공채 자료를 무료로 증정하는 '공채 핫딜' 이벤트를 26

공채핫딜

일까지 진행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그룹사별 선착순 100명에게 하반기 공채 준비를 위한 쿠폰을 증정하는 것이다. 에듀스와 제휴한 이 쿠폰에는 직무적성검사 모의테스트 응시권, 면접 가이드북, 기업 분석 자료집, 합격자 자기소개서 무제한 이용권 등이 담겼다. 선착순 100명 안에 들지 못했더라도 사람인의 '공채 수시 요점정리'를 가장 많이 스크랩한 50명은 별도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속 대학교 취업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동문 합격 선배와의 대담 및 인사담당자 특강에 참가하면 유익하다. 같은 학교 출신의 입사 선배로부터 솔직한 입사 후기를 들을 수 있고, 취업 준비에서 만난 학생끼리 스터디를 조직하면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에서 만난 것보다 효율적이다.

/정윤희기자 unique@

황우여·조희연 자사고 힘겨루기… 법정 가나

Issue&View 자사고 존폐 논란 '안갯속'

/유다혜기자 yudh@metroseoul.co.kr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타협에 실패하면서 자사고 존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와 국장급 선에서 첫번째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정취소가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협상에 실패했지만 위기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소송 하더라도 조 교육감 임기 내 결론 안 날 듯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혀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협의'가 아닌 '협의'로 돼 있는 만큼 최종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장관은 지정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실무회의 이후 한발짝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연히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자사고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되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한다면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에 소송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지정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건강증진 '고함! 토크콘서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5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It OKAY (그래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고(Go)함!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MC 송은이를 비롯해 금쪽의 아이돌 노홍철과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 표진인, 강남베스트의원 이승남 원장(가정의학 전문의)이 건강멘토로 참여해 청소년의 건강과 꿈에 대한 강연과 액티브토크를 진행한다.

또한 최근 인기가 급부상중인 7인조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남자로 돌아온 욤므도 함께 건강멘토로서 공연을 선보인다.

토크콘서트 참가 희망자는 공식 홈페이지(www.goham.kr)를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서울시, 내달초까지 수립

서울시가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수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10년 1만 3381명에서 2013년 1만 5659명으로 17%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 38곳을 방문하고 현장활동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안)'을 마련했다.

시는 15일 오후 4시부터 시청 서소문청사 4층 강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 민간 전문가, 학부모 등 150여 명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듣고, 다음 달 초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다혜기자

'선배 힘내세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30일 앞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 D-30 '꽃으로 파이팅' 행사에서 2학년 학생(왼쪽)이 수능을 앞둔 3학년 선배에게 꽃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고 58%, 서울대 진학 '제로'

박혜자 의원 "교육부, 일반고 살리기 협조해야"

전국 일반고 1525개교 중 877개교가 서울대학교에 한 명도 진학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14일 공개한 교육부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일반고 1525개교 중 877개교가 서울대에 한 명도 보내지 못했다.

또한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일반고의 수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일반고는 1437개교 중 53.4%인 811개교였는데 비해 올해는 1525개교 중 42.5%인 648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기준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자율형 사립고는 전체 49개교 중 48개교, 외국어고는 전체 31개교 중 30개교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자사고 신입생 100% 추첨 등 일선 교육감들의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다혜기자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29.25 (+2.04)	544.05 (+6.74)
금리	환율
2.28 (+0.02)	1064.50 (-3.50)

뉴스&뉴스

"이탈리아 탄산수 맛보세요"
14일 서울 홀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이탈리아 탄산수 '폰테 멜레그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폰테 멜레그리를 100만병에 출시한다. /홈플러스 제공

구직자 58% "상향 평준화"

●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스펙의 상향 평준화를 가장 큰 취업 고민으로 여기고 있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14일 취업준비생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지원자들의 고스펙화를 취업의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이어 줄어든 채용공고(44.9%), 까다로워진 자소서 항목(35.2%), 채용공고 검색(11.4%) 등이 거론됐다. 한편 구직자들의 하반기 입사지원 횟수는 평균 15회로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4.5%였다. /김승호기자 unique@

은행 가계대출 3.7조 증가

●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크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조6000억원으로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연관성이 큰 주택거래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7월 6200건, 8월 6800건, 9월 8800건이다. /김민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24일 창간 일간 서울특별시 가00006

QM3 "결함 알리지 않아야 보상"

르노삼성 은폐 시도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시판에 들어간 르노삼성 QM3에서 앞 유리 균열이 속출하고 있으나 원인파악을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QM3는 룸미러와 앞 유리가 결합되는 부분에서 다수의 균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된 차들은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QM3 동호회의 모 회원은 "룸미러를 조정하다가 앞 유리가 깨지면서 떨어졌다"고 하면서 "룸미러 배선 분리도 안 돼서 서비스센터까지 너덜거리는 채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회원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이와 같은 고장이 일어나면 선팅(틴팅) 비용까지 제조사에서 물어주는데 르노삼성은 앞 유리만 교환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그제야 선팅 비용을 물어주겠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르노삼성 서비스센터 관계자가 이 회원에게 "선팅 제공 받은 사실을 언론을 포함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하면서 "언론에 알릴 경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후 르노삼성은 선팅 대신 상품권 30만원과 오일무료교환권 1장을 제시하며 문제를 마무리하려 했고, 문제가 커지자 상품권 액수를 50만원으로 올려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원은 르노삼성의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로 했고, 이를 알게 된 QM3 오너들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QM3의 결함 내용을 신고하고 있다. 14일 현재 이 신고센터와 QM3 동호회에는 결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글이 십여 수 올라와 있다. 결함 피해를 봤지만 글을 올리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공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송과정의 문제이거나 고객의 문제인지 파악 중"이라면서 "르노 측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 문제점이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품 자체의 하자보다는 조립상의 문제이거나 완성 후 이동 중에 문제일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은 르노 측의 원인분석이 나오기 전까지 QM3를 리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은 소비자의 과실에도 무게를 두고 있으나, 최근 QM3를 인도받자마자 앞 유리 균열을 확인한 고객이 있을 정도여서 소비자 과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QM3는 앞 유리 균열 외에도 센터 물당 이탈, 라디오와 내비게이션 작동 멈춤 현상, ECS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문제가 있는 차의 규모와 원인을 아직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소유자에게만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훈기자 fentar@metroseoul.co.kr

문화접대비 활용 기업 15% 그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주·음악회·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데 기업이 쓰는 돈을 말한다.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공동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의식 조사'에 따르면 참여기업(76개)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화접대비 실적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환기자 yan@

/삼성전자 제공

삼성·LG, 전자展에서 혁신 스마트기기 선봬

차세대TV·스마트홈·웨어러블 등 한자리에

말 한 마디로 거실의 TV와 조명 등 기기들을 작동시키고,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집안을 모니터링 하는 등 어릴 적 공상과학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4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5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생활을 바꿔놓을 혁신적인 스마트 기기들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에서는 생활가전을 포함해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기술 트렌드와 가까운 미래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자유롭게 굽혔다 펼 수 있는 세계 최대 크기의 TV인 105인치 벤더블 UHD TV를 국내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105·78·65인치 커브드 UHD TV, 65·55형 커브드 풀HD TV 등 다양한 커브드 TV 제품군과 함께 커브드 사운드바를 전시해 '토탈 커브드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 스마트홈 전시 공간도 눈길을 끈다. 댁외 공간, 거실, 부엌 순으로 구성해 관람객이 직접 일상 가정처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이프티 서비스는 도어락과 스마트폰, IP 카메라를 연동해 집 밖에서 집안을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받는 기능이다. 거실로 꾸며진 전시 공간에서는 영화 모드 라고 리모컨에 말하면 AV 기기가 서라운드 음향으로 바뀌고 조명 밝기도 낮아지는 기능을 활용해 TV 영화 감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차세대 TV와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생활가전, 모바일 기기 등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출시한 '울트라 올레드 TV'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제품은 3300만개의 서브픽셀로 실물을 눈으로 보는 듯한 생생한 화질을 갖췄다. /정혁진기자 hjjung@

금리 인상 시기 속도 조절

연준, IMF 세계 경제성장 하향 조정 후 바뀌어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유럽발 세계경제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 전망보다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달까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내년 중반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FRB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모든 상황은 뒤바뀌었다.

IMF는 지난 7일(현지시간)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낮은 3.8%로 전망했다. IMF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유럽과 일본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영향이 컸다.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결국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FRB 주요 인사들도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FRB 인사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타룰로 FRB 이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의 콘퍼런스에서 "전세계 경제 성장이 우려스럽다"면서 "상승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제 결정에 있어 생각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많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도 최근 세계은행 연차총회 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충분히 진행되고 많은 신흥국들이 대응 능력을 갖출 때까지 FRB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자동이체 등록만으로 6% 금리"

신한銀, '새희망적금' 판매실적 570억 기록

신한은행은 14일 서민고객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한 '신한 새희망적금'의 판매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최대실적인 3만4225좌, 5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희망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연소득 1500만원이하 근로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수급자, 신한은행 서민대출상품고객 등 저소득 서민고객을 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적금상품이다.

이는 월불입한도 20만원으로 자동이체등록만 하면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월 서민대출 이용 후 상환한 고객을 새희망적금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서민고객의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희망적금은 3%대 예금도 사라진 요즘 시대에 서민고객의 목돈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6%의 상품"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일회성 도움이 아닌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서민고객의 성공스토리도 함께 쓸 수 있는 상생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은기자

배당·증권·유틸리티 금리인하 수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저금리 기조 속 배당주, 증권주, 유틸리티주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 여론이 확인됐고 최근 국내 경제지표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15일 예정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기보다 지난 8월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한 뒤 다음달 추가 인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달 금리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지배적인 기류다.

증시 전문가들은 저금리에서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는 배당주 중에서는 통신업종을 꼽았다. /김현정기자 hkim@

"빨간밥차·이동식푸드마켓 빌려드려요" BC카드는 14일 이동식 급식차량인 '빨간밥차'와 이동푸드마켓을 필요한 곳에 공유하는 소셜 쉐어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셜 쉐어링이란 기업 자산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BC카드는 공익봉사를 위해 밥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 기업에게 이를 대여해 줄 예정이다. /BC카드 제공

농협, '공격 경영' 은행·증권·보험 급성장

점포 수 국민은행 제치고 1위로 올라서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로 금융권에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농협금융의 남다른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이 구조조정 등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반면 농협은행은 지점 수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늘리며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말 1만4600여명이던 농협은행 임직원 수는 올해 9월 말 현재 1만5700명 가량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점포 수도 1184개에서 1195개로 늘어났다.

이는 은행권 부동의 1위였던 국민은행을 제친 것으로 이 기간 국민은행의 점포는 40개 가까이 줄어든 1161개로 집계됐다.

씨티·SC·하나·국민·신한·외환·기업·우리은행 8개 시중은행의 점포 수가 지난 1년간 270여개(5%)나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농협은행의 영업망은 더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예금 증가액 또한 성적 뛰었다.

지난 8월까지 농협의 예금 증가액은 11조4000억원으로, 2위인 우리은행(5조1000억원) 예금 증가액의 2배가 넘었다. 같은 기간 대출(8조1000억원)과 펀드(1조2000억원), 퇴직연금(4600억원)도 증가액 1위를 지켰다.

농협 생명보험과 증권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해 오는 17일 출범하는 NH투자증권(가칭)은 총자산 42조원으로 대우증권(28조원)을 제치고 단숨에 증권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보험사 또한 1000명 가까이 설계사를 늘리고, 출범 당시 전혀 없었던 독립 보험대리점과의 제휴도 120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4600개에 달하는 농·축협 지점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있어 농협의 확장 경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성장세에 지난해 말 금융그룹 중 5위에 머물렀던 농협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올해 상반기 말 311조원으로 3위까지 올라섰다. 이는 2위인 하나금융(315조원)과 불과 4조원 차이다.

/최현만기자

보험사기 규모 5조 육박

국민 1인당 보험료 10만원 추가 부담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피해액만 4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됐다. 이는 국민 1인당 9만6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2013년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4조7235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피해액을 추정하기 시작한 2010년도(3조4105억원)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조313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험사기 적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189억6000만원으로 매년 7% 이상 증가해 2010년보다는 38.9%가 늘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조사국 43명 중 22명은 보험사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해 병원·정비업소·렌터카업계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전담토록 하고, 조사 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석기자

"증시 20% 정도 상승할 여력 있다"

기업 실적·글로벌 유동성 가장 큰 변수…내년 코스피 예상 1900~2200선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2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내년 증시는 기업 실적과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미국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두 차례 정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14일 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쉰 것을 고려해 2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이 언제 사나, 경기가 진짜 좀 좋아질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는 있다"며 "그러나 그 기대감이 계속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놓였는지, 아니면 희망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그 다음은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1900~2200을 제시했다.

최근 8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서 1조8000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와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같은 추세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으로 움직이는 동력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이 내년 6월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서 하반기에 추가로 올리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크지 않아 지금과 같은 미 달러화의 초강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조정도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랠리가 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뉴욕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간 급증했던 주식담보대출 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뉴욕증시의 3대 지수인 S&P500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30%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주가 흐름을 보면 두 번의 랠리가 발견된다.

2009~2011년 1차 랠리는 경기 호조에 따른 반등이었고 2011~2014년 2차 랠리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등 시중에 자금을 푼 국가들이 해당됐다.

그는 "뉴욕증시가 최근 쓴맛을 봤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S&P500지수의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이 17배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높지 않다"며 "향후 22배까지 오르더라도 기업 실적이 유지되고 미 국채금리가 3%라는 가정 하에 부담스럽진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78@metroseoul.co.kr

KDB대우, 연 10.4% ELS 등 판매

KDB대우증권은 14일부터 ELS 7종, ELB 1종, DLS 4종, DLB 2종 등 14종 총 107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1934회 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4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10.4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들은 ELS/ELB의 경우 16일까지, DLS/DLB는 17일 오전 1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현정기자

다음카카오 합병 상장 14일 다음과 카카오와의 합병 신주 상장 첫날 7조5000억원대 시가총액으로 코스닥시장 1위주에 오르며 다음카카오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합병 상장기념식에서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김석 삼성증권 대표이사,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정지완 코스닥협회 회장. /연합뉴스

신한카드, 앱 할인 서비스 '앱 콤보' 출시

신한카드는 14일 스마트폰 유료 앱(Application) 구매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앱 콤보(Combo)'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앱 콤보'란 카드 회원들이 각자 필요한 혜택을 선택·구매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형 유료 서비스 플랫폼이다.

어느 유료 앱을 구매할 때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 전월 신용판매(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0%, 100만원 이상이면 15%를 할인해 준다.

구매금액뿐만 아니라 스티커나 게임아이템, e-book 등의 앱 내 모든 컨텐츠 구매금액에도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대상 금액은 원화(KRW) 기준 1만원까지이며 월1회, 월2회 한도로 1년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용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지속적이고도 기하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앱 콤보'의 출시를 준비하게 됐다"며 "콤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고객과 가맹점, 카드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19@

KB 경영안정 때까지 LIG 손보 인수 보류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작업이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공석 상태인 KB금융이 경영안정을 되찾은 이후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KB금융그룹의 경영실태와 지배구조가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LIG손보 인수승인을 검토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안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는 지난 6월에 LIG손보와 6850억원(지분 19.47%)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8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자회사편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10월중 금융위가 KB의 LIG손보 인수 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간의 다툼과 퇴진으로 경영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가 진행 중인 차기 회장 선임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편입승인은 인수 및 피인수 기업의 경영건전성, 경영상태, 인수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LIG손보 인수 건의 경우 KB의 경영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과 2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인수' 안건은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속이 타는 것은 KB다.

KB는 인수계약을 맺을때 10월 27일까지 금융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연 6%의 지연이자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 등에 물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는 28일부터 하루 1억1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KB측 관계자는 "인수작업이 연내 중 마무리되면 LIG손보의 이름을 빼주고 KB금융 계열사들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방통위 국감, 단통법·개인정보 유출 등 질타

최성준 위원장 "분리공시 관철 못시켜 죄송"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700MHz 주파수 분배,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단통법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도 단통법 논란의 핵심쟁점은 분리공시였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측에서도 자문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추진에 있어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4년간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이었다"면서 "이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과징금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놓고도 전날 미래부 국감에 이어 질의가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미래부의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에서 사업자가 정상적인 UHD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채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으며 참고 의견이지, 방통위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미래부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지만 방통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미래부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관계를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700MHz 대역 할당을 놓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재난망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구 방통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통신용 할당이 허사가 돼버렸다"며 "재난망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재난망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현 상황에서 재난망에 700MHz 대역 20MHz 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연구반 외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주파수 활용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엄마랑 아이랑" 활로윈 쿠킹클래스 LG전자는 지난 13일 백설과 함께 서울 벽림동 CJ제일제당센터 백설요리원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할로윈 키즈 쿠킹클래스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애플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31일 출시

이통3사 통해 24일부터 예약판매 나서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

애플은 4.7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6와 5.5인치 제품인 아이폰6 플러스의 국내 전파인증을 완료하고 31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중국·인도·이스라엘·폴란드 등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추가 출시하고 연내에는 115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레티나 HD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설계한 A8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A8 프로세서는 전작인 아이폰5s에 탑재됐던 A7보다 연산능력은 25%, 그래픽 성능은 50% 빠르다. 또 iOS 8을 탑재해 더 단순하고 빠르며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모든 건강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강 앱과 사용자가 어디서나 파일을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서비스도 포함됐다.

전작보다 화면은 커졌지만 두께는 얇아졌다. 아이폰5s의 두께가 7.6㎜였던 반면 아이폰6·6플러스는 각각 6.9㎜와 7.1㎜로 0.5~0.7㎜ 줄었다. 카메라 기능도 향상됐다. 기존 아이폰5s와 화소수는 동일한 800만이지만 F2.2 밝기의 렌즈를 탑재해 어두운 장소에서도 보다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새로운 고속 연사 모드에서는 초당 10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아이폰6 플러스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을 넣었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두 모델 모두 애플 온라인 스토어, 이동통신사 매장 및 애플 공인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4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장위인기자 hl.une0404@

0.4%뿐인 대기업, 공제 혜택은 60%

법인세 감면제 특혜 전락 우려

전체 법인 가운데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 감면에서는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이었다.

이중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대기업집단이 60.6%(5조6491억원)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1827개)는 전체 법인(51만7867개)의 0.35%에 그치고 있다.

전체 법인의 81.31%(42만1040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18.3%(9만4938개)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86.9%(1조675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82.3%(8418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대기업집단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덕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54억원) 등이 해당한다.

/박상율기자 sm@

슈피겐, 아이폰6 메탈 케이스 기획전

이달말 출시 예정인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를 멋지게 치장할 수 있는 케이스 기획전이 열린다.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은 오픈마켓 11번가와 함께 '아이폰6 메탈 케이스 기획전'을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기획전에서는 아이폰6용 케이스 '네오하이브리드 메탈'과 '네오하이브리드EX 메탈' 시리즈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네오하이브리드 메탈'은 국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네오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 메탈 버전 제품이다. 리얼 알루미늄 소재를 케이스에 접목해 아이폰과의 일체감이 뛰어나며 간결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네오하이브리드EX 메탈'은 아이폰 특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범퍼형태의 케이스다. 알루미늄 소재의 하드프레임을 추가해 메탈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이들 제품을 구매하면 애플공식인증을 받은 슈피겐의 충전 케이블 'C10L'을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s@

영국 왕세손비도 반한 '진한 키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스노그' 런던 명물 부상… 화려한 인테리어도 볼거리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비도 '진한 키스'에 반했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스노그'가 미들턴 왕세손비 등의 사랑을 받으며 런던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소호. 2008년 이 곳에 진한 키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노그를 간판으로 내건 가게가 등장했다. 매혹적인 이름과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 때문에 언뜻 보면 성인 용품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요거트 가게다.

창업자인 롭 베언스(64)와 파블로 우리베(45)는 18년째 함께 살고 있는 동성 커플이다. 두 사람은 스노그 만큼 고객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이름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스노그는 맛있는 요거트는 물론 팝아트 스타일의 가게 인테리어로도 인기가 높다. 분홍색 2층 버스와 귀여운 캐릭터 장식에 런던 시민은 감탄사를 쏟아낸다. 유명인사들도 스노그를 즐겨 찾는다.

두 사람은 뉴욕 여행 중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맛과 향이 깊은 요거트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설탕만 잔뜩 들어간 뉴욕 요거트에 실망해서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두 사람은 귀국 후 가게 부엌을 연구실 삼아 요거트 개발에 몰두했다.

특히 이들은 영국에 제대로된 유기농 요거트 업체가 없다는 생각에 틈새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6개월간 밤낮으로 땀을 쏟았다.

설탕을 넣지 않고 맛있는 요거트를 만드는 게 쉬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가베 시럽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 아가베 시럽은 멕시코산 블루 아가베 선인장 열매로 만든 천연 감미료다.

첫 요거트가 등장하자 런던 시민은 매장 앞을 가득 메웠다. 런던에서 1호점을 낸 뒤 스노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 10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카타르에도 지점을 열었다. 조만간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부유층은 터치·'짠순이'는 와이파이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장 타깃 승객따라 양분

항공사의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타깃 승객에 따라 양분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델타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거액을 투입해 터치-스크린식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중소 항공사는 기내 무선 인터넷(와이파이)만 제공한다.

항공사의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타깃 승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좌석 뒤편에 터치-스크린식 기내 엔터테인먼트 설치한 항공사는 부유한 승객이 타깃이다. 와이파이만 설치한 항공사는 저렴한 항공료를 원하는 승객을 타깃으로 한다.

대형 항공사는 승객에게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오락 콘텐츠를 주문하도록 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비행기 1대당 설치비가 600만 달러(약 64억 원)에 이르고 설치 무게도 600파운드(약 272kg)나 돼 대형 비행기에만 설치 가능한 게 단점이다.

미국 항공사가 지난해 항공료 이외에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음식과 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75억 달러(약 29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신문은 밝혔다.

/조선미기자

미국서 933kg 초대형 호박 등장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서 열린 호박 경연대회에서 933kg짜리 초대형 호박을 출품, 대회 신기록을 세운 남성이 우승을 차지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슈미트 회장 "구글 최대 경쟁사는 아마존"

"구글의 주요 경쟁자는 빙, 야후가 아니라 아마존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에릭 슈미트(사진) 구글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0%에 달하는 검색엔진 점유율로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지적에 대해 슈미트 회장은 "보통 아마존을 검색엔진으로 생각하지 않으나 물건을 구입하려할 때 아마존에서 찾는 경우가 그렇지않는 경우보다 더 많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회장은 구글이 독점적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회사들과 매우 다르게 설하고 있다. 구글은 채널도, 기자절로도 아니다"며 "구글은 또 단일버전으로 가젯과 연결돼 있어 경쟁을 허용치 않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혹은 전기그리드도 아니다. 누구도 구글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슈미트 회장은 이어 "구글의 시장 위치가 신참자들과 혁신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래에 등장하는 구글과 같은 존재는 과거 구글이 AOL을 따라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글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국明기자 lorito@

새로 나온 책

파리핫플 50 정기범/이봄

진짜 파리지엥처럼 파리를 즐기는 법을 담았다. 책은 한 끼에 1유로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카페는 물론 한 끼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도 소개한다. 저자는 한번쯤은 명품 가방의 유혹을 뿌리치는 대신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의 향연에 자신을 초대하는 호사를 누려보는 것이 바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여행하고 사랑하고 고양이하라 이용한/북폴리오

시인이자 여행가이자 '고양이 작가'로 불리기도 하는 저자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도시와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난 수많은 고양이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누구나 인정하는 고양이의 천국 모로코와 터키, 무심한 듯 느긋하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일본의 고양이 섬까지 고양이는 고양이라서 행복하고 사람들은 고양이가 있어 행복한 6개국 30여 곳의 묘생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필름 뉴욕 스콧 조던 해리스/낭만북스

뉴욕은 고전부터 블록버스터까지 전 세계 영화제작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다. 책은 영화의 도시 뉴욕에서 촬영되거나 배경이 된 영화 44편을 선정해 영화 제작에 대한 고찰과 가장 인상 깊은 뉴욕 촬영 장면을 전한다. 우디 앨런, 스파이크 리, 마틴 스콜세지 등 세계 영화 감독들이 왜 뉴욕을 영화 소재로 사용했는지 영화의 도시 뉴욕을 탐험해 본다.

또 다른 인도를 만나다 김영수/청감

21세기 중국에 이어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인도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며 인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가 인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종교 등 전반에 걸쳐 다방면의 모습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현재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며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또다른 유럽을 만나다 서현수/미래의 창

유럽의 정취와 함께 낯선 문화, 새로운 감성을 맛볼 수 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둘러싸인 대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리를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작품 하나를 1분씩 감상해도 모든 작품을 보려면 총 8년이 걸린다는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의 베르사유라 불리는 여름궁전 등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뜨는 사업, 캠핑 비즈니스 홍진석/라이스메이커

수년간 캠핑장 개발과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 온 저자가 캠핑장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캠핑장을 상업하는 방법과 비용 등 염두에 둬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운영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개한다. 저자는 캠핑장을 개발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차별화된 콘셉트를 잡고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의 맛집 2014 남부지역 블루리본 서베이/서울미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맛집평가서다. 기존의 전통 있는 오래된 맛집 리스트에 새롭게 발굴된 숨은 맛집,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맛집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2014년판에서는 아쉽게도 새로 리본 세 개의 평가를 받은 곳은 없다. 그러나 조만간 리본 세 개의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맛집이 여럿 눈에 띈다.

화천에서 놀자 이소희/넥서스북스

세계 7대 불가사의 축제로 꼽히는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화천의 8가지 테마, 36곳의 대표 스팟을 소개한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파로호의 산소 100리길을 따라 자전거 트레킹, 붕어섬에서 즐기는 짜릿한 액티비티, 레저, 들꽃과 맑은 계곡이 있고 예술인이 모여 사는 감성 마을 등이 있다.

제주 자동차 여행 코스북 신경철/길벗

매년 베스트 휴가지로 손꼽히는 제주도를 자동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완벽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법을 전한다. 여행 초보자도 당황하지 않는 렌터카 여행 노하우는 물론 내 차를 이용한 여행 정보까지 담은 여행서다. 이동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코스를 짜주고 맛집, 숙박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준다.

/박지원기자 ·ㄴnews

"엄마·아빠와 떠나는 힐링 캠핑"

캠핑을 통한 가족 성장기 풀어 내

결혼 10년 차. 어느 가족에게나 있을 법한 균열이 툭툭 터지기 시작했을 때 주말에 아이들과 리모컨 싸움이나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아이들 일기 소재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캠핑을 다니기 시작한 주부가 있다.

결단은 과감했으나 첫 캠핑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렇게 5년째 가족과 캠핑을 다니게 된 저자는 집안을 벗어나자 마음의 여유로워졌고 남편과 아이들 또한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됐으며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한다.

고마워 캠핑 조윤주/팜파스

저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가족에게 캠핑을 통한 가족 성장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캠핑을 시작한 이후 '가족의 시간'을 되찾기까지 이들이 함께한 경험을 '고마워 캠핑'에서 만나보자.

아이와 아빠에게 캠핑이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엄마에게 캠핑은 '힐링'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고마워 캠핑'에서 눈여겨볼 것은 저자가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내면을 심리학에 비춰 살펴보는 대목이다. 또 캠핑 다니기 좋은 봄·가을뿐 아니라 사계절 캠핑의 경험이 다양하게 녹아 있어 계절별 캠핑의 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가족들이 한 텐트에 누워 오감의 안테나를 한껏 세우고 계절의 참모습을 만끽하는 장면들은 캠퍼들의 로망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길게는 1000년, 짧게는 100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종부들의 손맛은 유구한 세월 동안 가풍과 지혜가 쌓여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주제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전국 각지의 종가 밥상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향기를, 자연에 둘러싸인 밥상은 우리에게 선조의 결과 전통의 고마움을 일깨워준다. – '종가를 지켜온 종부의 손맛'(이유희/오픈하우스) 중

/황재용기자 hsoul38@

'여행자의 집'에서 듣는 특별한 이야기

화제의 책

서울 게스트하우스 청춘 여행기

2만원의 행복, 게스트하우스 서울 권혁진/즐거운상상

게스트하우스 전성시대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나고 있다. 자유여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이 이름이 이제는 새로운 여행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500개 정도다. 여행자들이 주로 머무는 종로와 홍대를 시작으로 강남과 대학로, 한남동 등 곳곳에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고 있다.

대도시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서울의 인기 게스트하우스 20곳을 들면서 만난 호스트와 게스트들은 책에 남았다. 생활인이 아닌 여행자가 만나는 서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으며 국악 공연이 열리고 갤러리를 감상할 수 있는 등 이벤트와 놀거리가 풍성한 게스트하우스의 개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각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는 여행자들의 특별한 사연도 만나볼 수 있다.

각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들이 추천하는 게스트하우스 주변 동네 맛집과 동네 카페 정보도 풍성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 시티투어, 서울여행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물론 게스트하우스에 처음 가보는 여행자를 위한 팁 역시 제공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노출 없이도 빛난 여배우

부산국제영화제 스타들의 헤어·메이크업

지난 주말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막을 내렸다. 올해는 개막 전부터 주최 측이 '여배우 노출 자제'를 당부하면서 레드카펫 스타일링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은 여배우들은 섹시함보다는 우아함을 선택했다. 노출 없이도 반짝반짝 빛났던 여배우들의 스타일을 소개한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문소리는 드레스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드레스와 자연스런 업 스타일로 고혹적인 룩을 완성했다. 김희애·염정아·수현 역시 오프숄더의 롱 드레스에 업 스타일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염정아는 화려한 헤어와 메이크업 대신 헤어를 낮게 묶어 올리고 최소한의 화장으로 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돋보이게 했다. 헤어숍 바이라의 백민정 원장은 "업 스타일을 할 때 높고 풍성하게 묶기보다는 낮게 말아 올리면 훨씬 분위기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아성과 차예련은 순백의 롱 드레스에 로우 포니 테일 헤어로 성숙미를 더했다. 각각 강렬한 눈 화장과 빨간색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줬다. 레드 드레스로 이목을 집중시킨 김소은은 화사한 피부에 입술만 레드 컬러로 강조해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김규리·탕웨이 클라라는 한쪽으로 길게 풀어 내린 일명 '여신 헤어 스타일'로 레드카펫을 빛냈다.

김규리는 벨벳 소재의 업 트임 롱 드레스로 깨끗한 각선미를 뽐냈다. 김태용 감독과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탕웨이는 트레이드 마크인 긴 생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주고, 블랙과 그린 프린트가 섞인 롱 드레스를 입었다. 매번 노출 패션으로 입에 오르내린 클라라도 이번 영화제에선 순백 드레스로 반전 이미지를 보여줬다.

수 많은 사진기자의 플래시를 터트리게 한 아역배우 김새론은 블랙 미니드레스·블랙 하이힐 등 나이에 걸맞는 수수한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다.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영화제에 참석한 구혜선은 스킨톤의 시스루 롱 드레스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영화제 본연의 뜻을 존중했다.

김새론 메이크업을 담당한 비아라의 오현미 원장은 "투명한 피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피치톤 컬러 섀도로 생기 있는 느낌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탄산수 제조기 꼼꼼하게 살피고 구매를

직구·병행 제품 등 '안전과 A/S 피해' 우려

최근 탄산수 열풍이 일면서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접 구매(직구) 등을 통해 탄산수 제조기를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비공식 경로를 통한 구매로 안전과 A/S문제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소다스트림 공식 수입원과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린더의 경우 100% 충전돼 있다. 하지만 구매대행·직구·병행수입 등 비공식 경로의 제품은 빈 실린더 또는 용량 미달의 미니 실린더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또 공식 판매점을 통해 구입할 경우 콜 센터·홈페이지·백화점 매장 등을 통해 단산가스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지만, 비공식 경로로 제품을 구입하면 리필이 불가능해 재사용 할 수 없고 불법 사제 가스 리필을 이용할 경우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공식 수입원의 제품은 A/S가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된다. 반면에 구매대행이나 직구·병행수입 제품은 국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비공식업체를 통해 유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황의검 밀텍산업 대표는 "단순히 싸거나 당장 A/S 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공식 루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metroseoul.co.kr

캠핑 간식도 'DIY'가 대세

취향따라 내 손으로 만들어 재미도·맛도 "굿"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가을을 맞아 식음료업계는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기획된 DIY(do-it-yourself) 캠핑 간식으로 캠핑족 공략에 나서고 있다. DIY 캠핑 간식은 쉽고 간편하게 개인의 기호에 맞는 레시피 제조가 가능하며 먹으로 만드는 재미까지 선사해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 간식도 취향에 따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인기다. 허쉬 코리아는 허쉬밀크초콜릿·마시멜로·비스킷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미국식 전통 캠핑 간식 스모어(S'more) 패키지를 출시했다. 마시멜로를 구워 초콜릿과 비스킷 사이에 넣는 캠핑 먹거리로 취향에 따라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다.

탄산수는 물 대용으로 마실 수 있고 과일 에이드나 칵테일을 만들 수 있어 캠핑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디아망' 등 탄산수는 탄산의 청량감과 깔끔한 맛이 어떤 과일과도 잘 어울려 과일청을 넣어 간편하게 과일 에이드를 만들 수 있다.

알코올 음료의 혼합에 이용되는 믹서류를 활용하면 손쉽게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토닉워터는 진과 섞으면 깔끔한 맛의 진토닉, 캠핑 때 남은 소주나 와인과 섞으면 고급스러운 스파클링 칵테일이 완성된다.

색다른 칵테일을 원한다면 생강의 맛과 향에 탄산의 청량감을 더한 진로믹서 진저에일을 활용할 수 있다. 소주·와인·위스키·브랜디 등 알코올 음료와 섞으면 풍부한 생강향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다익인터내셔널 모히또 에이드 파우더를 활용하면 에이드 칵테일·아이스음료 등 다양한 모히또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매일유업의 대용량 '저지방 요거트인 매일 바이오 플레인 저지방'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토핑해서 먹으면 더욱 좋은 간식이다. 취향에 따라 블루베리나 키위 등 과일·아몬드 등 견과류·씨리얼을 토핑해서 즐길 수 있다.

/정영훈기자 jmk@

"기온 뚝, 곰탕으로 면역력 키우세요~"

강강술래,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30% 할인
영양간식 돈가스·쇠고기육포 등 알뜰구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 발령 등 지난해보다 빠른 추위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고객들을 위한 보양식과 영양간식 할인행사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5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곰탕은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기력보충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100% 국내산 돼지 통등심과 시연치즈를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세트 2.16kg 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 2.16kg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2만54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이달 말까지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풍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정의 회화 그 푸르름에 물들다' 전시회 티켓과 어드름·아토피성 피부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세트를 증정한다.

/황영일기자

탈모치료 반드시 피부과에서

피부과의사회, 남성형 치료 지침 발표

남성형 탈모(안드로겐 탈모) 환자가 원형 탈모증이나 비흉터성 모발 손실 등 다른 탈모 질환 환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남성형 탈모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먼저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에 의해 모발선이 M자 형태로 후퇴하거나 정수리 쪽의 모발이 가늘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두피관리센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두피관리센터 등의 비의학적 탈모치료 기관이나 탈모관리 제품들의 허위 과장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탈모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샴푸에는 '탈모 방지'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탈모 치료 효과를 표기할 수 없다. 즉 샴푸는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남성형 탈모 초기에는 약물 요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데 약물 치료과 수술 등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진행되어야 한다. /황재용기자

수능 점수, 건강관리가 좌우

눈 피로도 줄이고 생체리듬 유지해야…대장증후군도 관리 필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초조한 마음으로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지만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수능 당일 최고의 몸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

먼저 눈관리가 필요하다. 눈이 피로하면 신체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 긴장하게 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두통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모니터를 볼 때 30c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50분 공부를 했다면 최소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공부할 때는 주조명 외에도 보조조명을 이용해 눈의 피로도를 낮춰야 하며 스탠드와 같은 직접 조명에 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수험생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책상 주위의 환경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탠드는 실내 조명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공부하는 시간만큼 눈에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까지 자신만의 생체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고 평소보다 지나치게 수면을 많이 취하거나 공부한다고 수면 시간을 갑자기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잠에서 깬 후 2시간 정도가 지나야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능 2~3주 전부터는 시험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며 숙면을 위해서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울러 이맘때는 입시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복통과 설사 등이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배변활동에 장애가 와 시험을 망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배변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코와의 '미키드 코와정장정'과 같은 의약품을 통해 꾸준히 질환을 관리해야 한다.

또 수능은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허리를 곧게 편 후 양 발 전체가 바닥에 충분히 닿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닦고' 출간

심봉석 이대의료원 교수 생활 속 이야기 담아

인터넷에서 비뇨기과를 검색하면 발기부전이나 남성수술, 정력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뇨기과에서는 남성 생식기 관련만 아니라 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요로계(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을 포함해 남녀 생식기의 건강과 질병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비뇨기과는 누구나 궁금해 하면서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금기 영역이었다.

이에 심봉석 이화여대 의료원 교수는 남·녀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을 소개하고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생활 속 비뇨기과 이야기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닦고'를 출간했다.

심 교수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 책은 생식기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중년 남성들에게 최대의 적인 전립선까지 비뇨기과에 관한 여러 상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JAPAN AIRLINES

JAL, 모바일 사이트 개설

JAL그룹이 전 세계 26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사의 해외지구 홈페이지(www.jal.com)를 모바일에서도 오픈했다.

탑 페이지에서 지역과 언어를 선택하면 12개 언어 대응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는 해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심플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채용했다.

어디지에서도 '간단하고 빠르게'라는 콘셉트로 제작된 다섯 단계의 스텝만 거치면 간단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테마별로 떠나는 나만의 가을 유럽

박물관·힐링·트레킹 등 다양한 경험 가능

가을의 유럽은 여름 휴가철이 지나 한결 차분해진 유럽의 일상을 느낄 수 있고 날씨도 쾌청해 여행하기 좋다. 이때는 숨 가쁜 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 여유로운 자유여행이 제격이다. 나만의 테마가 있는 유럽여행을 떠나보자.

◆목적에 따라 여행지 선택

먼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박물관여행이 어울린다. 개선문과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 도심과 근교에는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또 2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쿠리팩스에서 판매하는 '파리 뮤지엄 패스'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입장할 수 있어 편리한 다양한 뮤지엄 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도시로 휴식여행을 떠나는 힐링이 안성맞춤이다.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이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니스다. 이탈리아의 휴양도시인 소렌토 등이 인기가 높다.

특히 소렌토에서 아말피에 이르는 절벽 해안도로는 영국 BBC 방송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되기도 한 곳으로 유럽 최고의 비경을 자랑한다.

현지의 자연과 함께 숨쉬는 트레킹여행도 빼뜨릴 수 없다. 10월에도 봄처럼 따뜻한 스페인의 남쪽 도시 안달루시아는 이슬람과 유대교가 섞여 독특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여행 명소로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 정열의 도시 세비야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스페인의 전통 농경생활 체험이 가능하며 올리브 나무 숲이 많은 조용한 스페인의 시골 풍경도 만날 수 있다. /황재용기자

view
채널 뷰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으로"

'슬로우 비디오'의 남상미

'슬로우 비디오'에서 남상미(30)가 연기한 수미는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거리가 먼 모습으로 등장한다. 헝클어진 파마머리, 두꺼운 니트에 목도리를 아무렇게 걸친 것이 그다지 꾸미지 않은 털털함이 도드라지는 캐릭터지만 그럼에도 수미는 영화 속에서 은은하게 빛난다. 남상미가 지닌 인간적인 매력이 수미에게 고스란히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2009년 영화 '불신지옥'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남상미는 이후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좋은 친구" 같은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에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한 행보를 이어왔다. '슬로우 비디오'는 드라마 '결혼의 여신'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합류했다. 드라마로 인해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영화 속 수미가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뜻 출연을 결심했다.

극중 수미는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도 시달려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남상미는 수미의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꾸밈없이 솔직한 면모에서 자신과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했다.

"수미와 저는 안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닮았어요(웃음). 그 동안은 매 작품마다 최대한 저를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캐릭터에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미는 저와 닮은 점이 많아서 오히려 반대로 다가갔죠. '여배우 남상미'가 아닌 '인간' 남상미에 가까운 모습으로 수미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수미지만 한편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아련하게 드러날 때도 있다. 오디션에 늦게 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렇다. "롱 테이크로 촬영해서 정신없었어요. 매 끊어지기 때문에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활을 걸었죠(웃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수미의 앞에는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으로 남아 있는 친구 여장부(차태현)가 나타난다. 남상미는 "수미에게는 꿈을 꽉 붙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슬픈 장면이지만 영화에는 예쁘게 담겼다"고 말했다.

뮤지컬 배우 오디션에 합격한 수미가 여장부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술을 마시며 연기했다. "감독님이 제가 술 마시면 기분이 '업'되는 걸 잘 아세요. 그 모습이 영화에 나오길 바라셨죠. 그런데 막상 술을 마시고 연기를 하려고 하니 잘 취하지 않더라고요. 혼자 소주 반병을 마셨는데도 연기할 때는 맨 정신이라서 아쉬웠어요(웃음)."

영화는 수미의 작은 행동과 몸짓까지도 빛나는 순간으로 담아내고 있다. 오디션에 합격한 수미가 기쁨에 겨운 나머지 폴짝폴짝 뛰며 춤추는 신은 남상미 스스로도 임팩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한 장면이다.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는 남상미에게 작은 선물처럼 남았다. 영화 엔딩을 장식하는 수미를 향한 마음을 담은 여장부의 그림들도 그 중 하나다.

"시나리오에는 '장부를 쫓아 갤러리에 들어가면 그림이 있다' 정도로 적혀 있었어요. 막상 그림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특히 바닷가에 마을버스가 서있는 그림은 등장인물들의 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수미가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흘리는 눈물은 배우로서의 거짓 눈물이 아닌 인간 남상미가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여장부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제 인생에 남을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 선생님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웃음)."

영화는 서울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길의 정취를 통해 느린 삶이 지닌 아날로그 감성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남상미는 "지금은 일 때문에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도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여유로움과 편안함은 배우로서 남상미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화려해서 부담스러운 톱스타보다는 편안함과 진정성을 줄 수 있는 배우이고 싶어요. 대중과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따뜻함을 주고 싶고요.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품을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지금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남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자신과 닮은 긍정적인 인물역에 매료
여배우 아닌 '인간' 남상미 모습 담아
"편안함·진정성 주는 연기자 될래요"

'내일도 칸타빌레' 원작과 비교해야 하나요

주원·심은경 '노다메 칸타빌레' 캐릭터 재해석…클래식 음악드라마 기대↑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가 첫 방송 후 시청률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첫 회 시청률 7.7%(TNmS 전국 기준)로 동시간대 1위 MBC '야경꾼 일지'(9.9%)를 근소한 차로 쫓고 있다.

'내일도…'는 방영 전부터 원작 일본 만화, 동명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와 비교됐다. 원작의 무게를 져야 하는 건 '내일도…'의 숙명이다. 그러나 첫 방송 후 '왜 비교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주원과 심은경(사진 오른쪽)은 원작의 치아키와 노다메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일본 특유의 코믹 요소도 한국 정서에 맞게 고치려는 흔적이 보였다. 무엇보다 '내일도…' 시청자 중엔 원작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주원은 차유진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다. 잘생긴 외모와 까칠한 성격, 떠담스러운 반전 매력이 어우러져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심을 자극하고 있다. 심은경도 역보를 밀지 못하고 느낌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설내일 역을 발랄하고 사랑스럽게 완성했다. 설내일에게 과장된 표정과 대사는 당연하다. 작품이 유지해야 할 만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노다메와의 비교를 피할 수 없었다. 시청자는 "노다메가 억세졌다" "그나마 심은경이니까 소화하는 거다"라고 아쉬워한다.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 주원

/그룹에이트 제공

신구 배우들의 조화가 인상적이라는 분석이다. 차유진은 확 없어 발랄한 설내일을 때 잠만 눌러주며 무게 균형을 맞춘다. 클래식계의 이단아 유일락 역의 고경표도 맛깔스러운 코믹 연기로 재미를 더했다. 백윤식·예지원·이병준·남궁연 같은 묵직한 배우들은 청춘들을 성장시키는 교수진으로 등장했다.

작품은 클래식을 다루는 음악드라마로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대학 캠퍼스와 유럽 거리를 배경으로 한 영상, 서정적인 클래식 선율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배우들은 악기 연주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이 장소를 제공해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내일도…'는 KBS2 '꽃보다 남자'(2009)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다. '꽃보다 남자'도 한국판 F4를 창인 우려에서 출발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출연 배우들은 한류 팬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내일도…'가 '노다메…'를 넘어 재탄생할 수 있을 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전효진기자

leanh@@metroseoul.co.kr

쎄시봉 친구들 7개월 만에 또 뭉친다

쎄시봉 친구들(송창식·윤형주·김세환·이상벽)이 돌아온다.

3년 만에 4인 멤버가 모여 개최한 콘서트를 공연 연휴 전 매진시켰던 쎄시봉 친구들은 7개월 만인 다음달 14~1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로 다시 뭉친다.

이번 공연은 쎄시봉 친구들이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아티스트로서의 멤버십과 연기를 인정받는 무대에서 멤버들은 어느 때보다 구성과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크음악의 특성상 음향적으로 보다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국내 유명 음향 엔지니어들과 협의를 마쳤다. 지난 공연에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던 국내 어쿠스틱 기타 세션의 최고 권위자 함춘호가 다시 합류해 협연을 할 예정이다.

쎄시봉 친구들의 이상벽, 김세환, 윤형주, 송창식(왼쪽부터) /쇼플러스엔터테인먼트

공연을 제작한 쇼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공연이 일찍감치 매진되자 50~60대 중년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앙코르 콘서트를 요청해 이번 공연이 성사됐다"며 "앙코르 공연을 통해 중년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따뜻하고 차분한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송창식·윤형주·김세환 각자의 히트곡과 트윈 폴리오 시절 히트곡 무대를 비롯해 70년대 음악감상실 쎄시봉에서 공연했던 추억의 음악 등을 선사한다. 문의 1544-7543 /유순호기자 suno@

시크릿 송지은 "솔로 신난다"

첫 미니 앨범 '25' 발표…댄스곡 이미지 변신

걸그룹 시크릿의 멤버 송지은(사진)이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송지은은 14일 정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25'의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예쁜 나이 25살'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예살 시크릿 멤버들 없이 처음으로 댄스 무대를 꾸민 송지은은 "사실 지금 몹시 신난다. 솔로는 할 땐 무대 가운데 서서 노래했는데 오늘은 춤을 추며 걸어 다니니 카메라가 날 따라와서 주목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과 솔로활동을 지켜보며 대견했다. 그룹 활동하던 친구들이 담을 벗어나 혼자 방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도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예쁜 나이 25살'은 외모도 사랑도 성숙한 스물다섯 살 여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로 히트곡 제조기 이단옆차기의 세련된 비트가 인상적인 댄스곡이다. 송지은이 지난 2011년 발표한 첫 솔로곡 '미친거니'가 그의 파워풀한 보컬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였다면 '예쁜 나이 25살'은 송지은의 청아한 목소리부터 짱짱한 고음 처리 담백한 발라까지 다양한 보컬을 감상할 수 있는 노래다.

올해 25세인 송지은은 "나중에 할머니가 된 후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 같다"며 "솔로 활동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피곤하기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kimjm@

카라 전 멤버 니콜 이효리와 한식구

B2M과 계약 솔로 준비

걸그룹 카라의 전 멤버 니콜(사진)이 새 소속사와 손잡고 솔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니콜의 새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14일 "니콜이 전 소속사 DSP미디어와의 계약 종료 후 당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길종화 B2M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니콜은 카라 데뷔 시절부터 함께 했던 인연으로 현재까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오는 중"이라며 "니콜은 자신을 잘 알고 지원해줄 수 있는 소속사를 원했으며 길 대표 역시 니콜을 연습생 시절부터 지켜보며 엔터테이너로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계약 성사 배경을 밝혔다.

B2M엔터테인먼트에는 이효리 허영생 김규종 등 DSP미디어 출신 가수들과 걸그룹 스피카, 신예 남자 솔로 가수 예준남 등이 소속돼 있다.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튼 니콜은 앞으로 본격적인 솔로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세계 최대 스크린이 설치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의 수퍼플렉스G 내부 이미지. /롯데시네마

세계 최대 스크린 열린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15일 개관

롯데시네마는 15일 세계 최대 스크린을 보유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개관한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잠실에 새롭게 들어서는 롯데월드몰의 엔터테인먼트동에 위치한 영화관이다. 총 21개관 4600여석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5층부터 11층까지 테마별로 구성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영화 예술의 중심지'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페셜관들을 선보인다. 10, 11층은 '삼삼의 미래 도시'라는 콘셉트로 기네스북 인증 세계 최대 스크린(가로 34m, 세로 13.8m)이 설치된 초대형관 '수퍼플렉스G', 국내 최대 규모의 4D관인 '수퍼4D'로 구성된다. 각각 총 622명과 2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수퍼플렉스G'는 돌비애트모스와 4K워드영사시스템으로 최고의 영상과 사운드 기술을 선보인다.

7, 8, 9층은 메인 홀로 '예술 문화의 도시'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다. 공연이 가능한 '씨네패밀리', 소규모 단위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샤롯데프라이빗', 유아 동반 가족들을 위한 '씨네패밀리', 애니메이션 특화관 '아르떼 애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5, 6층은 '낭만과 품격이 있는 도시'라는 콘셉트로 명품 영화관 '샤롯데'와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아르떼 클래식', 컨퍼런스 기능에 최적화된 '씨네비즈' 등을 만날 수 있다.

개관일인 15일에는 일반 상영없이 개관 기념으로 무료 상영회를 연다.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노홍빠빤 실국열차', '닌자터틀', '인투 더 스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우리는 형제입니다' 등을 1회차씩 상영한다. 롯데시네마 모바일앱으로 미리 신청해 당첨된 사람만 관람이 가능하다. /장병호기자 solanin@

피아니스트 김윤 1년 만에 새 앨범

네 번째 싱글 '블루 러브' 발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김윤이 네 번째 싱글 '블루 러브'로 돌아왔다.

지난해 발표한 싱글 '레인드랍스(Raindrops)' 파트 2 이후 1년 만에 발표한 이번 싱글은 2곡으로 구성돼 있다. 첫 트랙 '블루 러브'는 청명한 하늘이 그려지는 산뜻한 피아노 터치와 담백한 구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두 번째 트랙 '레몬향기'는 상큼한 멜로디가 포근하게 감싸는 선율이 인상적인 곡이다.

김윤은 19세이던 2003년 발표한 첫 앨범 '미스티 레인(Misty Rain)'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멜로디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탁월한 멜로디 감각과 서정적인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두 번째 앨범 '리멤버(Remember)'를 계기로 드라마 '토지', '눈꽃', '패절춘향', '낭랑18세', '장길' 등 인기 드라마의 OST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등 폭 넓은 행보를 보여왔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인기 재즈 가수 요시카즈 메라의 앨범을 프로듀싱하기도 했다.

김윤은 현재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 삼원뮤직과 던킨도너츠, 할리스커피 등의 브랜드뮤직을 제작하는 BMF의 CEO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14일 다섯 번째 싱글 '블루 스카이'와 여섯 번째 싱글 '러브 어즈…'도 함께 발표했다. /탁순호기자 suno@

장서희, '장보리' 시청 소감은…

"악녀 대세 내가 길 튼 것"… '뻐꾸기 둥지'서도 열연

배우 장서희가 MBC '왔다! 장보리' 민소희 패러디를 본 소감을 전했다.

민소희는 SBS '아내의 유혹'(2008)에서 장서희가 맡은 캐릭터로 당시 민소희는 눈 옆에 점 하나를 찍고 전혀 다른 여자로 변신해 복수를 하는 인물이었다.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KBS2 일일극 '뻐꾸기 둥지' 기자간담회에서 장서희는 "'왔다 장보리'에서 민소희가 등장한 걸 봤다"며 "정말 많이 웃었다. 아직도 캐릭터가 시청자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내의 유혹'과 '왔다 장보리'는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다. 장서희는 "김순옥 작가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며 "'뻐꾸기 둥지'로 복귀한다고 했을 때 서로 '장보리 잘 되자', '뻐꾸기 잘 될 거다'라고 격려했다. 작가에게도 민소희가 의미있는 인물인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장서희는 '인어 아가씨'부터 '아내의 유혹', '뻐꾸기 둥지'까지 다수의 막장 드라마에 출연하며 복수의 아이콘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는 "막장 드라마보다는 센 드라마라고 했으면 좋겠다"며 "최근 빠기 때문에 패러디도 해주는 것 같다. 막장이라고 다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재미도 있어야 하고 공감도 아울러 내야 한다. 나는 못된 배우라 아무도 보르는 작품에 출연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어 아가씨' 때만해도 악녀에 반감을 가지는 게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악녀가 대세"라며 "내가 길을 튼 거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뻐꾸기 둥지'는 오화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자의 대리모가 돼 복수를 꿈꾸는 이화영(이채영)과 자신의 인생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백연희(장서희)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다. 최종은 지난 13일 최고 시청률 22.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전개 후반 탄력 받고 있다.

장서희는 역할에 대해 "단면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슬픔, 모성애, 사랑, 출산, 배신의 감정을 모두 가진 종합 세트 같다"며 "재미있게 비무리되니까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뻐꾸기 둥지'는 102회를 끝으로 종영되며 현재 최종회 방송은 프로야구 경기 중계 때문에 다음 10일 즈음으로 예정돼 있다. /김출권기자 [illegible]

KBS2 일일극 '뻐꾸기 둥지' 장서희, 이채영.

권상우 中 '적과의 허니문' 캐스팅

"새로운 한류 트렌드 만들 것"

배우 권상우(사진)가 중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적과의 허니문'에 캐스팅됐다.

14일 권상우 소속사 에이지에이트컴퍼니는 "권상우가 중국영화 '적과의 허니문'에 남자 주인공 주운평 역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적과의 허니문'에서 권상우가 맡은 주운평은 연애결혼 주선 사이트를 창업한 인물이다. 영화는 야심은 많지만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주운평이 자기 회사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최고의 커플 매니저 하소우와 연애 '매칭'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여자 주인공 하소우 역에는 중국 배우 장수기가 캐스팅됐다. 연출은 장림자 감독이 맡으며 '엽기적인 그녀'의 곽재용 감독이 감수를 맡는다. 영화는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중국 상하이와 제주도를 오가며 촬영을 진행한다.

권상우 소속사 측은 "권상우는 중국의 떠오르는 젊은 감독과 프로듀서가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끌렸다"며 "그들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새로운 한류 트렌드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10.20 (월) 밤 11시 첫 방송

이상윤 ♠ 신성록 ♠

tvN

넥센, 신기록의 날

박병호 51홈런·서건창 198안타·강정호 100득점

넥센 히어로즈가 거포 박병호(28)의 51홈런을 포함한 신기록 잔치를 펼치며 롯데 자이언츠를 12-4로 꺾었다.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박병호는 6-1로 앞선 5회초 2사 2루에서 롯데의 두 번째 투수 김사율을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홈런을 쏘아냈다. 이어 8회초 롯데의 네 번째 투수 이인복의 3구째 직구를 통타해 연타석 솔로 아치로 51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 동안 한국 프로야구에서 50홈런이 나온 건 박병호 이전에 단 세 번 뿐이었다. 1999년 이승엽(38 삼성 라이온즈)이 54홈런으로 가장 먼저 50홈런 고지에 올랐다. 이어 2003년에 이승엽과 심정수(39 은퇴)가 각각 56홈런 53홈런을 기록한 뒤 한 동안 50홈런을 달성한 타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박병호는 이날 경기에서의 홈런으로 삼성 이만수(1983~1985년), 빙그레 장종훈(1990~1992년), 삼성 이승엽(2001~2003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홈런왕 3연패를 예약했다.

넥센은 박병호의 51홈런 외에도 역사적인 기록 잔치를 벌였다. 서건창(25)은 안타 1개를 추가하며 꿈의 200안타에 단 2개만을 남겼다. 전날 197안타를 때려내며 1994년 이종범(현 한화 이글스 코치)이 수립한 한 시즌 최다안타 기록(196개)을 20년 만에 넘어선 서건창은 사상 첫 200안타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강정호는 4회초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 100득점을 완성해 프로야구 통산 13번째로 100타점-100득점을 달성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박병호와 함께 100타점-100득점 클럽에 가입했다. 한 팀에서 100득점 3명이 나온 것도 넥센이 처음이다. 서건창이 131득점, 박병호가 122득점, 강정호가 100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14일

넥센	000	530	013	12
롯데	100	000	012	4

[illegible]

■ 마산

삼성	010	000	000	1
NC	010	000	01X	2

[illegible]

이동국 빛바랜 득점포 코스타리카전 1-3 패

한국 축구가 올해 국내에서 열린 마지막 평가전 상대인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에 무릎을 꿇으면서 슈틸리케호 출범 이후 첫 패배의 쓴잔을 들이켰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 코스타리카에 1-3으로 졌다.

FIFA 랭킹 63위인 한국은 0-1로 뒤지던 전반 45분 와이언킹 이동국(전북)의 동점골이 터졌지만 코스타리카의 셀소 보르헤스(AIK)에게 후반 2분 결승골을 내준데 이어 후반 32분 오스카르 두아르테(브뤼헤)에게 쐐기골까지 허용했다.

슈틸리케호는 11월 14일 요르단, 11월 18일 이란과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중동 원정에 나선다. /김민준기자

세계 골프 여제들 인천으로 몰려온다

국내 유일 LPGA 대회 16일 개막
김효주·박인비·페테르센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강호들이 인천에서 샷 대결을 펼친다.

오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 코스(파72·6364야드)에서는 LPGA 투어 '아시안 스윙'의 세 번째 대회인 하나외환 챔피언십이 열린다.

하나외환 챔피언십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다. 국내 선수가 우승하면 LPGA 투어 출전권을 받기 때문에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불참한다. 대신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제미동포 미셸 위(25), 폴라 크리머(미국), 펑산산(중국) 등이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대결한다.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한 김효주(19·롯데)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다.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시즌 4승과 함께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내년 시즌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홈코스에서 승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계속되는 대회 출전으로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끼고 있어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지난 13일 결혼한 한국여자골프 에이스 박인비(26 KB금융그룹)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대회에 출전한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린 박인비는 이번 대회로 결혼 자축 우승컵을 노린다.

한편 이번 대회는 3라운드로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4라운드 동안 컷 탈락 없이 진행된다. KLPGA 소속 선수 12명을 포함해 78명이 출전한다. 총상금은 200만 달러,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다.

/장병호기자

김효주

수잔 페테르센

오승환 '요미우리 도쿄돔을 넘어라'

한신 15일부터 파이널스테이지 6연전 권정길 올라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마무리 오승환(32·사진)이 센트럴리그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클라이맥스시리즈(CS) 파이널스테이지에서 만난다.

일본 무대 진출 첫 해에 포스트시즌 2경기에 나서 총 4이닝 무실점의 역투를 펼친 오승환은 15일부터 요미우리와의 6연전을 통해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는 정규시즌 상위팀에 많은 이점을 주는 특징이 있다. 센트럴리그 정규시즌 우승팀 요미우리는 1승을 안고 6전 4선승제의 시리즈를 모두 홈인 도쿄돔에서 치른다.

오승환은 올 시즌 요미우리전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다. 파이널스테이지의 모든 경기가 열리는 도쿄돔에서는 특히 아쉬운 투구를 했다. 지난 8월 26일 도쿄돔에서 열린 요미우리전에서 3-2로 앞선 9회말 등판한 오승환은 ⅔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끝냇 1개, 폭투 2개로 2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올해 오승환의 요미우리전 성적은 11경기 등판 1패 5세이브 평균자책점 3.48이다. 도쿄돔에서는 5경기를 뛰며 1패 4세이브 평균자책점 5.79를 기록해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오승환이 요미우리에 설욕할 수 있을지가 관건 포인트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프로농구 전적 14일

SK	15	17	18	19	67
오리온스	20	21	13	23	83
모비스	21	15	13	26	75
KCC	20	14	16	20	70